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1주년 추모식

장광호 편집국장

승인 2021.04.26 10:48

5월7일,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



고하 송진우 애국지사

담양출신 항일 애국지사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1주년을 맞아 오는 5월 7일 추모식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열린다.

추모식은 기념사업회·광복회·보훈단체 인사의 추모사와 함께 추모강연, 헌화·분향에 이어 유족을 대표한 장손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하 송진우 선생의 탄신일을 맞아 기념사업회는 해마다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

한편, 고하 송진우 선생은 1890년 담양 금성면 대곡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고향마을에서 보냈으며 1908년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수학한 뒤 귀국, 1919년 서울 중앙학교 교장으로 3.1운동을 일으켰다.

이후 동아일보 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물산장려운동, 문맹퇴치운동, 국민계몽운동,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 등을 일으켜 일제의 탄압을 받는 등 항일 독립운동에 적극 나섰다.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선생의 고향인 담양 대곡마을에 복원된 생가와 기념관, 담양읍 관어공원에 추모비, 담양공고 앞 싹지공원에 추모시비가 있다. / 장광호 기자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